

“우승 위한 시스템 구축 중요...당장 착수”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KIA 타이거즈 맷 윌리엄스 감독

수비력 중요...기본기 탄탄한 팀 만들겠다
마무리 훈련은 선수들 알아가는 시간될 것
유망주 많다 들어 가르치며 동반성장 기대

KIA 타이거즈 맷 윌리엄스 신임 감독(54)은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향했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광주까지 차량으로 이동해 피곤했을 법도 했지만 그는 휴식보다 홈구장을 보길 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라커룸, 전력분석실, 웨이트장, 실내연습장, 더그아웃과 그라운드 등 꼼꼼히 체크했다. 시설을 살폈다. 특히 더그아웃 입구의 KIA 'V11' 우승 역사가 새겨진 사진에 감탄했고, 2017년 우승 사진에서 조계현 단장의

얼굴을 발견하고 유쾌한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입국 첫날부터 한국 특유의 문화라 할 수 있는 사우나와 매미이를 경험했고, 고추김밥과 만두라면을 먹는 등 한국문화 적응에도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받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KIA 사령탑 제안 수락 이유에 대해 “조계현 단장과 미팅을 하며 공유하는 비전이 같아 단번에 잘 맞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목표 지향하는 부분이 같았다. 목표를 위해 평



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나는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KIA는 유망주가 많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모든 팀에 해당되지만, KIA처럼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은 기본기가 탄탄한 야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서 기회를 받아 나갔을 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기가 탄탄한 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야구 철학에 대한 질문에는 수비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은 “주루플레이에서 한 베이스를 더 가려고 하는 것, 실수를 놓치지 않는 플레이가 중요하다”면서 “전성적으로 공격적이다. 플레이도 공격적으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 마무리훈련에서는 선수들을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내년 스프링캠프 준비와 올 시즌 잘못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파악하는 시간인 마무리 훈련이지만 아직 선수 파악이 안됐기에 코치들과 선수들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했다. 윌리엄스 감독의 계약기간은 3년, 목표는 물론 우승이었다.

그는 “프로야구는 우승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 우승을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당장 내일부터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팬들에게는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하겠다”면서 “타이거즈 팬들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즐거운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윌리엄스 감독의 유니폼 배번은 9번으로 결정됐다. 그는 데뷔 첫해(10년)와 마지막 2년만 제외하고 선수 시절 9번을 달았기에 의미있는 번호라고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올 시즌 9번은 윤해진의 번호였으나 신임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배번을 양보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18일 함평 헬린저스 필드에서 코치, 선수들과 상견례를 갖는다. 워드마이어 수석코치가 21일 입국 예정이어서 신임 감독과 수석코치 체제의 마무리캠프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진화 기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북한과의 경기를 마치고 귀국한 남자 축구 대표팀 손흥민이 17일 새벽 인천 국제공항 2터미널로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 늦게 공개된 ‘평양 원정’ 벤투호 전반전 유효슈팅 제로

벤투호의 ‘평양 원정’이 경기 이틀 만에 취재진에게 공개됐다.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내용에서는 북한의 기동력과 강력한 전방 압박에 제대로 실마리를 풀지 못한 답답한 경기였다. 심지어 벤투호는 전반전 동안 ‘유효슈팅 제로’에 그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드러냈다.

대한축구협회는 1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치러진 한국과 북한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 경기 영상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29년 만의 평양 원정에서 북한은 4-4-2 전술로 나왔고, 벤투호는 4-1-3-2 전술을 가동했다. 한국과 북한의 ‘감정 충돌’은 전반 6분 만에 나왔다.

김진수(전북)가 왼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북한 진영으로 ‘통 스로인’을 시도했고, 나상호(FC도쿄)가 공중볼을 다루는 과정에서 북한 수비수 박명성을 밀었다. 넘어진 박명성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양 팀 선수들이 모여들어 긴장 상황을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황인범(밴쿠버)은 북한 선수에게 얼굴 부위를 맞으면서 분위기는 더 격양됐다. 다만 황인범이 맞은 장면은 중계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면서 그라운드에서 선수끼리 주고받는 말과 작전 지시까지 고스란히 마이크에 담겼다.

수비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은 전반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벤투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90분 내내 엄청난 체력과 조직력으로 태극전사를 괴롭혔다.

북한은 전반 9분 리은철이 오른쪽 측면에서 시도한 크로스가 한국 골대로 향했고, 김승규(울산)가 몸을 날려 가까스로 막아내는 아찔한 장면도 나왔다.

북한은 잘 짜인 조직력과 스피드를 앞세워 한국의 좌우 측면을 공략했다.

반면 태극전사들은 빌드업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세트피스 기회도 제대로 살리지 못해 힘겹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전반 25분께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슈트 이날 벤투호가 시도한 첫 슈팅만큼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고, 결국 태극전사들은 전반 내내 유효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는 굴욕도 맛봤다. /연합뉴스



필 미컬슨 어프로치 17일 제주 서귀포시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열린 ‘더 CJ컵 @ 나인브릿지’ 1라운드 경기에서 필 미컬슨(미국)이 6번홀 어프로치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장애인역도연맹 박광혁 3관왕 전남 이미옥 육상 3관왕 4연패

광주장애인역도연맹 박광혁이 17일 서울을 립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 3관왕을 차지했다. 박광혁은 남자 -80kg급 벤치프레스종합 OPEN(선수부) 359kg, 웨이트리프팅 187kg, 파워리프팅 172kg으로 각각 1위에 올랐다. 특히 웨이트리프팅에서는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광주장애인육상연맹 이순훈은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00mB T11(선수부)에서 12초55로 금메달을 획득, 전남 남자 400mB T11(선수부) 금메달에 이어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체육회 김세정은 ‘여자 수상 개인전 1,000m PR1’과 ‘여자 수상 개인

전 여자 수상 개인전 1,000m PR2’에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광주장애인수영연맹 한애자와 임창진도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대회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 다관왕 레이스가 이어졌다. 전남농아인체육연맹 이미옥은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여자 원반던지기 DB(선수부)에서 26.75m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전남 장던지기 포환던지기 금메달을 획득했던 이미옥은 이날 메달로 3관왕 4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전남장애인사이클연맹 천상연도 남자 개인도로 75km 이내 C1(선수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장애인배구팀(남)이 결승에, 남자 뇌성마비(7인제) 축구가 4강에 진출했다. /최진화 기자

“안양, 값아야할 큰 빛이 있지”

광주FC, 내일 광주W경기장서 안양과 격돌
선수단 휴식기 맹훈련...20R 충격패 설욕 다짐

19-20일 펼쳐지는 하나원큐 K리그 2 2019 33라운드에서 광주FC의 1부리그 승격이 확정될 수 있을까. K리그2 1위 광주는 19일 오후 1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안양과, 2위 부산 아이파크는 20일 오후 1시 부산구덕 운동장에서 안산 그리너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경주의 수는 단 한가지다. 광주가 이기고 부산이 지면 잔여 3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광주가 2부 리그 우승과 함께 1부 승격을 확정짓는다. 전제조건은 역시 승리다. 승점 67점(19승 10무 3패)으로 K리그

2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는 2위 부산과 승점 7점차를 유지하고 있다. 자력 우승을 위해 안양전 승리는 필수다. 하지만 광주는 우승 외에 승리를 거둬야 하는 이유가 한가지 더 있다. 지난 20라운드 안양은 20일 오후 1시 부산구덕 운동장에서 안산 그리너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광주는 올 시즌 개막 19경기 무패를 달리고 안양을 만나 충격패를 당했다. 앞서 19경기 동안 8실점을 기록한 수비진이 이날 한경기에서만 7실점으로 무너졌다. 이후 광주는 8월 4경기 4무를 기록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이제 광주는 이번 안양전을 손꼽아 기다렸다. 2주간의 휴식기동안 이를 악물며 정신 무장과 목적역 강화에 힘썼다. 분위기는 좋다. 브라질 듀오 펠리페와 윌리안이 득점포 조준 준비를 마쳤고 부주장 여름을 비롯해 최준혁, 아솔마토프, 여봉훈 등이 복귀하면서 광주는 최상의 전력에 갖춰졌다. 최근 3연승에 올 시즌 홈 무패행진(11승 5무) 중이다. 물론, 안양은 쉬운 상대가 아니다. 13승 9무 1패(승점 48)로 K리그 3위에 랭크돼 있고, 승강플레이오프 진출확정을 위한 치열한 중위권 싸움에 빠져 있다. 알렉스-조규성-팔라시오스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앞세워 리그 최다득점 2위(55득점)를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맞대결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진화 기자

사이클 여자단체추발 ‘첫 올림픽 출전’ 기대

아시아선수권 2연패 성공 아시아 최강 확인

‘아시아 최강’을 재확인한 한국 사이클 여자 단체추발 대표팀이 역대 첫 올림픽 출전 기대도 키웠다.

여자 단체추발 대표팀(이주미·나아름·김현지·장수지)은 17일 충북 진천 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0 아시아 사이클 트렉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4km(250m 트랙 16바퀴)를 4분 26초 966에 달리며 중국(4분 31초 944)을 제치고 우승했다.

한국 여자 단체추발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땀고, 올해 1월에 열린 2019 아시아선수권을 이어 앞당겨서 개최된 2020 아시아선수권에서도 정상 자리를 지켰다.

대표팀은 아시아 최정상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다.

대표팀은 아시아 최정상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다.

대표팀은 아시아 최정상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다.

출전을 위한 포인트가 걸려 있다. 특히 아시아선수권은 세계선수권대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대회여서 중요하다.

한국 여자 단체추발이 올림픽 무대를 밟은 적은 없다.

단체추발은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단체추발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면 매디슨과 유니엄 출전권이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경기 후 이주미는 “단체추발이 올림픽 티켓을 따는데 중요한 종목이었는데 우승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직전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모두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서로 믿고 자리를 잘 지켰다”고 말했다.

올림픽 단체추발에는 8개 나라만 출전할 수 있다. 사이클은 유럽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다. 한국은 마지막 8위 자리를 두고 세계 각국과 경쟁하고 있다.

사이클 대표팀의 김형일 여자 트렉중장거리·도로 감독은 “8번째 티켓을 둘러싸고 세계 7~10위권 나라가 경쟁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우리만 아시아 팀이다. 대륙별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포인트 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앞으로 남은 월드컵 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도로사이클 종목에서는 도쿄올림픽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감독은 “아쉽지만, 오히려 트랙 종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체추발 대표 선수들은 대부분 도로 사이클을 겸하지만, 올림픽 레이스에서는 트랙 종목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사이클 여자 단체추발 대표팀이 17일 진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0 아시아 사이클 트렉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 시상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